

韓國 現代小說의 諷刺性 考察

丘 昌 煥

1. 序 論

우리 韓國의 文學에는 예로부터 諷刺性이 강한 作品들이 많아서, 諷刺는 古典文學으로부터 現代文學에까지 계승되어 온 傳統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俗謠라든지 辭說時調 內房欲辭 民謠 등 古詩歌에 諷刺詩가 많은 것은 물론이요, 假面劇 人形劇 등 古代劇에도 諷刺의인 特質이 많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諷刺와 諧謔은 특히 우리의 庶民文學 平民文學에 강하게 나타나 있고, 古典文學의 중요한 特質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古代小說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여러가지 寓話小說이라든지 판소리 系列의 小說 및 社會小說 등에서 강한 諷刺性을 살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¹⁾ 예컨대 「장끼傳」 「토끼傳」 「까치傳」 「쥐傳」 등의 寓話小說은 動物에 寄托하여 人間의 弱點과 惡德을 諷刺하고 있는 作品이며, 「洪吉童傳」이나 林燕岩의 「虎叱」 「兩班傳」 「許生傳」과 같은 社會性이 강한 作品에도 社會의 不條理를 批判하고 人間의 僞善과 惡行을 嘲笑하는 諷刺文學의 好例를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興大傳」 「裨將傳」 「雍固執傳」 「면장쇠傳」 「春香傳」과 같은 판소리 系列의 古代小說에도 諧謔과 諷刺가 넘치고 있어, 諷刺小說은 단연 古代小說의 중요한 類型을 이루고 있다.

대저 諷刺文學이란 人間과 社會의 惡德과 惡行과 不條理를 告發 暴露하고 이를 揶揄 嘲笑하며 또한 非難 攻擊하는 文學을 뜻하는데, 여기에는 諧謔과 批判이 들어 있다.²⁾ 따라서 諷刺文學은 社會의 文學樣式으로서, 批判精神을 바탕으로 하며, 또한 知的인 것이 특징이다. 諷刺는 社會에 不條理가 심할 때 나타나는데, 특히 社會體制가 硬化되어 正攻法을 쓰기 어려울 때 盛行되는 間接的인 批判文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諷刺文學은 多樣하기 때문에 嘲笑나 揶揄 등 消極的인 諷刺도 있고 攻擊과 批判 등 積極的인 諷刺도 있게 된다. 그리고 諷刺의 對象에는 모든 非人間的인 人間의 本性이라든지 社會의 不條理가 되기도 하고, 非理의 政治現象이나 奇怪한 女性이 對象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요컨대 諷刺文學이란 人間의 惡德이나 惡行을 嘲笑 揶揄하고 社會의 不條理를 批判하는 文學이기 때문에 東西文

1) 古代小說의 諷刺性은 金起東의 「李朝時代 小說論」 등에 많이 研究되어 있다.

2) cf. 拙稿, 「諷刺文學論攷」 「國語教育研究」 1輯 (1975. 2.) pp. 51-94

학을 통하여 많이 보게 된다. 西政文學에 있어서도 Boccaccio의 『Decameron』을 위시하여 J. Swift의 『Gulliver 旅行記』라든지 Chaucer의 『Canterbury 이야기』 등 諷刺小說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現代에까지 계승되어 George Orwell의 『1984年』이나 『動物農場』은 政治的 不條理를 심랄하게 파헤친 諷刺小說로서 유명하고, A. Huxley의 『홀륭한 新世界』는 科學文明의 萬能을 批判한 未來小說로서 심각한 問題意識을 제기한다.

이제 本稿에서는 開化期 이후 우리의 現代小說에 나타난 諷刺性을 考察하고 그 特性和 問題點을 살펴 보려고 한다. 그리고 本論文은 韓國의 諷刺文學을 体系的으로 考察하는 研究의 한 部分임을 밝히 두는 바이다.

Ⅱ. 本 論

1. 新小說의 諷刺性

우리나라의 古代小說에는 眞話小說이나 社會小說 또는 판소리系 小說과 같은 諷刺小說이 있어서 人間과 社會의 惡德과 惡行을 諷刺 批判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開化以後의 新小說이나 現代小說에도 계승되어 諷刺文學의 갈래를 보여준다. 물론 小說은 時代와 社會의 모습을 잘 반영할 수 있고, 詩의 경우보다 더한 批判意識과 思想性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小說作品에 크진 작진 諷刺性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小說은 主題나 表現形式에 있어서 여러 類型이 있으므로 특히 人間과 社會를 挪揄 嘲笑한다든지 非難 攻擊하는 경우에만 그 諷刺性을 말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보면 古代小說에 비하여 新小說이나 近代小說에는 本格的인 諷刺小說이 오히려 많지 않고 現代小說에 이르러서야 小說의 諷刺性이 盛行되는 것을 보게 된다.

먼저 開化期의 新小說을 보면 當時 社會相을 반영하고 封建社會의 矛盾을 많이 告發 批判하고 있기 때문에 諷刺의 特色이 더러 나타난다. 예컨대 李人植의 『銀世界』(1908)는 新劇運動을 일으킨 첫 作品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腐敗와 虐政으로 良民을 敗壞하는 兩班實態에 대한 平民 崔乘陶의 理實告發과 抗拒로 一貫되어 있으며, 끝머리에 가지 美國留學에 의한 新教育의 必要性이 絶망되고 또한 實踐에 옮겨져 있는”³⁾ 作品이다. 그렇다고 이 作品이 主題나 構造에 있어서 統一性이 있는 作品이나 하면 그렇지는 못하다. 즉 최병도는 죄없는 백성을 잡아다가 罰을 뒤집어 죄 주고 財物을 수탈하는 監司에게 항거하여 결국 죽지만, 그 子女인 玉順이와 玉男이는 아버지 친구의 주선으로 美國留學을 마치고 돌아와서 山中의 義兵들에게 잡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統一性을 잃고 있다. 趙東一은 이러

3) 全光錫, “韓國小說發達史 下” 『韓國文化史大系 V』(言語文學) p. 1192.

한 현상을 表面的 主題와 裏面的 主題와의 差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⁴⁾ 主題의 統一을 이루지 못한 예라 하겠다. 그런데 이 作品에는 “農夫歌” “나뭇군 노래” “상두소리” 등 民謠의인 노래가 많이 삽입되어 있고, 그 內容은 現實社會에 대한 諷刺요 批判으로 되어 있어, 官權에 대한 民衆의 抵抗意識을 잘 보여주고, 이 作品의 諷刺性을 더욱 들어낸다.

“내려왔네, 내려왔네, 불가사리가 내려왔네.
무엇하러 내려왔나, 최 잡아먹으러 내려왔네.” (童謠)

“순사도는 쇠귀신 / 호방비장은 구렁이 /
예방비장은 노랑수건 / 명방비장은 소경 불할당 /
공방비장은 초라니 / 회계비장은 갈강쇠 /
별실마마는 계집망나니 / 수청기생은 불여우.” (民謠)

“도둑질을 하더라도 사모 바람에 거드덕거리고, 망나니짓을 하더라도
금관자 서슴에 큰 기침한다. 애에고 날 살려라. /
강원도 두뿔말에 살찐 백성을 다 잡아먹어도 비뚱도 아니 누고
뱃병도 없다네. 애에고 날 살려라.” (나뭇군 노래)

“이 죽음이 무슨 주검이고 虐政 밑에 생주검일제 / 워어허 워어허 /
생세같은 젊은 목숨, 불연복에 맞아 죽었네 / 워어허 워어허” (상두소리)

「銀世界」 속에 삽입되어 있는 이와같은 노래들은 모두 官權의 腐敗와 封建社會의 虐政을 諷刺 批判하고 있는 것이다.

討論小說이라 불리는 李海朝의 「自由鐘」(1910)은 그 主題面에 있어서 新小說 중 가장 政治性이 강한 作品으로서⁵⁾ 별다른 事件이 없이 女性들의 政治問題나 社會問題에 대한 討論과 演說을 記述하는 形式을 취하고 있다. 즉 이 作品은 이혜경 夫人의 生自잔처에 초대를 받아 모인 新女性들이 女權問題라든지 新教育, 自主獨立, 階級 및 地方色 打破, 迷信 打破, 漢文廢止 등 여러가지 當面問題를 討論하는 小說이다.

“별번치 못한 구별이나 네 먼저 말씀하오리다. 우리 대한의 정계가 부패함도 학문 없는 연고요, 민족의 부패함도 학문 없는 연고요, 우리 여자도 학문 없는 연고로 기천년 금수 대우를 받았으니 우리나라에도 제일 급한 것이 학문이요, 우리 여자사회도 제일

4) 趙東一, 「新小說의 文學史的 性格」(韓國文化研究所) p. 136.
5) 金光鎧, op. cit. p. 1197.

급한 것이 학문인즉 학문 말씀을 먼저 하겠소, 우리 이천만 민족 중에 일천만 남자들은 응당 고명한 학교를 졸업하여 정치, 법률, 군제, 농, 상, 공등 만가지 사업이 족하겠지마는, 우리 일천만 여자들은 학문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유의 유식으로 남자만 의뢰하여 먹고 입으려 하니 국세가 어찌 빈약치 아니하겠소? 옛말에, 백지장도 맛들이야 가뵤다 하였으니 우리 일천만 여자도 일천만 남자의 사업을 백지장과 같이 기들었으면 백년에 할일을 오십년에 할 것이요, 십년에 할일을 다섯해면 할 것이니 그 이익이 어찌하고, 나라의 독립도 거기 있고 일민의 자유도 거기 있소.”

처음부터 끝까지 「自由鍾」은 이런 形式으로 되어 본격적인 小說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觀念의이고 抽象의이며 구체적 行動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잘못된 社會와 人間을 諷刺하고 批判하는 面이 많다. 그래서 主人公들은 꿈을 꾸어도 自主獨立한 꿈이며 開明한 꿈, 大韓帝國의 國泰民安한 꿈등, 모두 철저한 啓蒙的인 內容임을 알 수 있다.

開化期の 新小說은 모두 民衆을 깨우치려는 啓蒙小說이기 때문에 主題에 있어서 封建社會의 矛盾과 邪惡性을 暴露 諷刺 批判하는 小說이 많다. 李人植의 「鬼의 聲」(1908)이나 「雉岳山」(1912) 李海朝의 「빈上雪」(1908) 등은 封建社會의 病廢인 妻妾問의 갈등과 싸움을 그린 作品이며, 李海朝의 「驅魔劍」이나 菊初의 「雉岳山」은 迷信打破를 主題로 하였으며, 그 밖에도 잘못된 因習을 批判하는 新小說은 많다.

그 중에서도 安國善의 「禽獸會議錄」(1908)은 動物을 내세워 人間과 社會現實을 諷刺한 寓話小說로서, 여러 짐승이 人類를 논박하는 會議를 하는 形式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自由鍾」의 경우처럼 小說的인 스토리가 없는 演說로 꾸며져 있다.

“우주는 의연히 백대에 한결갈거늘, 사람의 일은 어찌하여 고금이 다르뇨? 지금 세상 사람을 살펴보니 애답고 불쌍하고 탄식하고 통곡할만 하도다. 천인의 말씀을 듣든지 역사를 보든지 옛적 사람은 양심이 있어 天理를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까왔거늘, 지금 세상은 인문이 걸판나서 도덕도 없이치고 엄치도 없이치고 의리도 없이치고 절개도 없이저서, 사람마다 더럽고 흐린 풍랑에 빠지고 헤어나올 줄 몰라서 온 세상이 다 악한 고로, 그를 옳음을 분별치 못하여 악독하기로 유명한 도적이 같은 도적놈은 청천백일에 土馬를 달려 왕궁 극도에 횡행되 사람이 보고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안자같이 착한 사람이 陋巷에 있어서 한 도시락밥을 먹고 한 표주박물을 마시며 간난을 견디지 못하되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 슬프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거꾸로 되고 충신과 역적이 바뀌었도다. 이같이 天理가 어거이치고 德義가 없어서 더럽고 어둡

고 어리석고 악독하여 금수만도 못한 이 세상을 장차 이찌하면 좋을꼬?"

이 作品의 叙述者 (narrator) 로서 금수회의에 방청한 한 人間이 "序言"에서 한 말인데, 이 作品의 主題가 요약되어 있다. 禽獸會議은 여러 짐승들이 나서서 人間의 邪惡하고 不倫한 行實을 非難 攻擊하고 批判하는 內容으로서, 叙述者의 다음과 같은 反省은 이를 잘 要約하고 있다.

"슬프다! 어리 짐승의 연설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세상에 불쌍한 것이 사람이로다. 내가 어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욕을 보는고! 사람은 만물 중에 귀하기도 제일이요 신령하기도 제일이요 제주도 제일이요 지혜도 제일이라 하여 동물 중에 제일 좋다 하더니, 오늘날로 보면 제일로 악하고 제일 흉포하고 제일 음란하고 제일 간사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어리석은 것은 사람이로다. 까마귀처럼 효도할 줄도 모르고, 개구리처럼 분수지킬 줄도 모르고, 여우보담도 간사한, 호랑이 보담도 포악한, 빌과 같이 정적하지도 못하고, 파리같이 동포 사랑할 줄도 모르고 창자없는 일은 게보따 심하고 부정할 행실은 월양새가 부끄럽도다."

이와같이 「禽獸會議錄」은 철저하게 人間의 惡德과 僞善과 邪惡을 暴露 非難 糾彈하는 小說로서, 新小說 中에서는 가장 諷刺性이 강한 寓話小說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作品도 지나치게 觀念的이요 直說的이기 때문에 한편의 小說 作品으로서의 藝術性이 不足하다고 하겠다. 現代小說로서 崔仁熙의 「總督의 소리」 등은 곧 이러한 statement 小說의 계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역시 小說의 思想은 觀念의 형태가 아니라 具體化되고 溶解되고 藝術化되어야 하는 것이다. 너무 이데올로기에 빠진 나머지 藝術을 잃어서는 안되고, 양자의 적절한 均衡과 調和가 있어야 하겠다.

2. 近代小說의 諷刺性

李光洙의 小說은 이 땅위에 本格的인 近代小說을 출발시켰기나와, 그의 初期短篇인 「少年의 悲哀」나 「어린 빛에게」라든지 長篇 「無情」은 既成道德을 批判하고 自由戀愛思想을 主唱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注目된다. 李光洙 文學의 中心思想이 民族主義의인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특히 그의 初期作品에는 自由戀愛라는 새로운 모랄이 제기되어진다.

"나는 朝鮮人이로소이다. 사랑이란 말은 듣고 맛을 못본 朝鮮人이로소이다. 朝鮮에 어찌 男女가 없으리까마는 朝鮮男女는 사랑으로 만나본 일이 없나이다. 朝鮮人의 胸中에

어찌 愛情이 없으오리까마는 朝鮮人の 愛情은 두 일도 되기 전에 社會의 習慣과 道德이라는 바위에 눌리어 그만 말라 죽고 말았나이다. 朝鮮人은 과연 사랑이라는 것은 모르는 國民이로소이다. 그녀가 夫歸로 될 때에 얼굴도 못보고 이름도 못듣던 남남끼리 다만 契約이라는 形式으로 婚姻을 맺어 一生을 이 形式에만 束縛되어 지나는 것이로소이다. 대체 이 따위 契約結婚은 짐승의 雌雄을 사람의 마음대로 마주 붙임과 닮음이 없는 것이로소이다. 옷을 지어 입을 때에도 제 맘에 드는 마당과 빗잔에 제 맘에 드는 모양으로 지어 입거늘, 담뱃대 하나를 사도 여럿 중에서 고르고 골라 제 맘에 드는 것을 사거늘, 하물며 一生의 伴侶를 정하는 때에 어찌 다만 父母의 契約이라는 形式 하나로 하오리까.”

--- 「어린 밧이개」에서

李光洙의 近代小説이 특히 倫理面에 있어서 封建倫理를 批判하고 있음은 위의 例에서도 보거나, 長篇「無情」에서는 新女性和 舊女性の 性格을 대조적으로 描寫하는 가운데 영체가 지닌 舊道德을 非難 또는 批判하고 있다.⁶⁾

한편 李光洙의 啓蒙的인 文學을 拒否하고 統粹文學을 주장한 金東仁의 경우에는 더구나 人間과 社會의 不條理에 대한 諷刺과 批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마치 金東仁과 같은 自然主義 作家는 人間을 物質的 機械的 科學的으로 解剖하고, 遺傳과 環境에 따라서 人間이 어떻게 변모되는지를 實驗的으로 추적하기 때문에, 대개는 人間の 本能世界를 暴露하고 邪惡한 現實社會를 告發하는 수가 많았다.

自然主義 作品으로 유명한 「잡자」(1925)는 貧困한 環境 때문에 道德的으로 墮落해가는 “복녀”라는 한 女人의 悲劇을 그린 作品인데 여기에는 人間の 本性인 不倫과 邪惡性이 여지없이 暴露되어 나타난다. 즉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있게 자라난 복녀가 貧窮과 게으른 남편 때문에 賣淫을 하게 되고 결국 王寺芳의 낮에 찢려 죽는데, 이는 道德이라는 偶像을 박탈해 보려는 作者의 自然主義的인 人生觀의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⁷⁾ 특히 복녀가 기자회견에서 송충잡이를 하다가 감독에게 처음으로 몸을 빼앗기고 보이는 反應(일 안하고도 돈 더 받고, 긴장된 유희가 있고, 벌어먹는 것보다 쥐짴고……)은 極히 퇴폐적이다. 또 남편이라는 자가 아내의 賣淫을 같이 즐겨하고, 마지막에 복녀가 王寺芳의 낮에 被殺되었을 때에도 돈 몇푼에 이를 복인하는 場面 등은 완전히 反道德的이라

6) 白鐵, “新文學史” 『國文學叢史』(新丘文化社) pp. 267~268.

7) 趙清鉉, 『韓國現代文學史』(成文閣) p. 288.

고 하겠다. 그러므로 金東仁은 「잡자」에서 不道德의 세계를 暴露하여 人生을 嘲笑하고 諷刺하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金東仁의 이러한 文學傾向은 「시골 黃子방」 「정희」 「明文」 「金姬實傳」 등 많은 作品에 나타나 있는 바, 「明文」(1925)에서는 宗教를 揶揄하고 嘲笑하였으며, 「말가락이 닦았다」(1932)에서는 血肉을 원하는 人間의 弱點이 表現되고 「K博士의 研究」(1929)에서는 非人間的인 食糧의 研究를 諷刺하고 있고, 「金姬實傳」(1939)에서는 沒道德的인 新女性을 諷刺적으로 그리고 있다.

玄鎭健의 「B舍監과 러브·레터」(1925)는 人間의 本能을 夸해친 自然主義 作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女學校 寄宿舍의 울드머쓰 舍監先生을 諷刺한 作品이라 하겠다. 이 作品에서 B舍監은 매우 엄격한 성품이고, 女學生들에게 오는 러브·레터는 모조리 검열 적발하여 벌을 준다. 그런데 학생들이 잠든 깊은 밤이면 혼자 舍監室에서 러브·쇼우를 벌리는데 女學生들에게 온 러브·레터를 읽으면서 一人劇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戲謔요 지독한 아이러니로서, 人間의 本性을 暴露하고 이를 諷刺한 것이다. 더구나 이 作品은 대단히 技巧的이어서, 밤 중에 잠을 깨 女學生 벗이 舍監室 쪽에서 나는 男女의 情談에 놀래어 살금 살금 가보니 舍監先生의 모노·플레이라는 것이 나타나도록 꾸며져 있다.

玄鎭健의 「眞操와 藥價」(1929)라는 作品은 軍中에서 이름난 명의인 崔주부가 가난한 시골 女人의 美人計에 빠져서 그녀 남편의 重病을 고쳐주게 된다는 이야기로서, 이것도 人間의 愚行을 諷刺하고 있는 作品이다. 부인이 貧操를 제공하는 대신에 남편의 병금을 뿌리 뽑도록 의원을 몰고 가는 것은 분명 非道德的인 소책이지만, 이 作品은 人間의 弱點을 잘 捕捉 描寫하여 이를 嘲笑하고 있다. 玄鎭健은 「운수 좋은 날」(1924)에서 人間存在의 無常함을 그려 人生의 아이러니를 나타내었고, 「술 권하는 社會」(1921)에서는 人材를 포용하지 않는 日筭 社會의 不條理를 告發하고 있으며, 「할머니의 죽음」 「불」 등에서도 人生의 斷面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自然主義 作家의 作品에서도 볼 수 있으며, 羅稻香의 「뽕」(1925) 「물레방아」(1924)에도 人間의 愛慾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描破함으로써 人間의 動物의 本性을 폭로 고발한다.

한편 리얼리즘文學을 성공시킨 廉想涉의 경우에도 初期作品을 통해서 人間과 社會에 대한 諷刺性을 보이고 있다. 그의 「標本室의 青개구리」(1921) 라든지 中篇 「萬歲前」(1923)은 절실한 것같은 時代相과 함께 노이로제 患者가 되어가는 當代 知識人들의 苦惱의 세계를 描破한 作品으로서, 여기에도 人間과 社會에 대한 강한 諷刺과 批判이 나타나 있다. 흔히

廉想涉의 初期作品을 自然主義 傾向이라고 評하지만,⁸⁾ 오히려 人間의 內面世界를 과학적 心理主義 경향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標本室의 靑개구리」에는 神經分裂에 빠진 narrator “나”와 거둬 다친 家庭의 不幸으로 이미 미치버린 狂人을 對照적으로 등장시켜 各박한 社會狀況이 벗어내는 知識人의 苦惱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構成이 산만하고 視點도 混亂에 빠졌으며, 특히 “나”라든지 狂人 金昌億으로 하여금 發狂케 하는 社會現實에 대한 묘사가 극히 부족하여 하나의 sentimentalism에 빠지고 말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萬歲前」은 narrator요 主人公인 “나”의 눈을 통하여 구더기가 끓는 무덤 속같은 조선의 社會現實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인테리 靑年의 自意識的인 고민과 絶望과 逃避主義를 묘사하고, 不安하면서 담담한 當代의 분위기를 능숙하게 그렸다.⁹⁾ 이 作品은 時代苦에 눌려서 虛無主義에 빠진 “幻滅의 世代”라고나 할 知識靑年의 自意識을 능숙하게 그렸으며, 作家는 그를 통하여서 否定的인 社會現實을 냉철하게 批判하고 있다.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 잔개 바 에가 말리하는 가뜰한 백성들이다. ……공동묘지 속에 사니까 죽어서나 시원스런데 가서 파분히겠다는 것인가? 그러나 하여간에 구더기가 득실득실 하는 무덤 속이다.

모두가 구더기다. 너두 구더기. 나두 구더기다. 에잇! 웨지라! 움도 싹도 없이 쓰러져 버려라! 망할데로 망해버려라!”

幻滅의 社會相과 不條理한 現實을 보고 主人公은 이와같이 虛無와 冷笑에 젖어 自嘲를 내뱉고, 挪揄와 非難을 퍼붓는다. 1918年 가을 卒業試驗 도중에 아내 위독의 急電을 받은 主人公 (日本留學生)이 歸鄉하여 喪妻하고 다시 渡日하기 까지의 story를 narration 形式으로 엮어간 이 作品은 韓國의 社會現實과 當時의 人間들을 痛烈히 諷刺 批判하고 있다. 그리하여 廉想涉의 「萬歲前」은 日帝治下의 植民地 社會가 바로 “무덤”이요, 그 속에서 일컫사는 人間들은 모두 “구더기”로서 嘲笑되어진다. 지나치게 否定的으로 보았고 pessimism이 바탕으로 되었다는 評도 받지만 時代와 社會를 잘 그려낸 成功작업은 물론이다.

다음에 20年代 後半期에는 社會性이 강한 傾向派 文學이 나타나서 社會와 人間을 적지않게 諷刺하고 있다. 朱耀燮의 「殺人」 「人力車軍」 「개밥」이라든지 崔曙海의 「脫日記」 「飢餓와

8) 白鐵, op. cit. pp. 332~ 趙演欽, op. cit. pp. 283~

9) 拙稿, “廉想涉의 「萬歲前」小攷” 「韓國言語學」 創刊號 pp. 152~

殺戮」등은 代表的인 傾向派 作品이거니와, 이들은 주로 貧窮問題를 素材를 하였고 反抗을 主題로 하였으며, 反抗의 方法은 殺人과 放火로 되어 있음은 볼 수 있다.¹⁰⁾ 그리고 이들은 當時의 社會現實을 정직하게 반영 告發하면서 많은 不條理를 暴露 非難한다. 예컨대 朱耀燮의 「殺人」(1921)은 賈春婦를 主人公으로 하여 社會의 不條理를 파헤친 作品으로서, 결국 反抗意識이 짙어서 非人間的인 抱主 노파를 殺害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쁘는 잘보였다.

착취와 과도한 생식기 노동과 번민과 실없는 한숨이 소녀이던 그로 하여금 3년이 못되어 30이 넘어 보이는 노파를 만들어주고 말았다. 태양은 꽃을 피어 오르게 하되 구박과 무정의 학대는 열얼을 빚게 만드는 것이다. 삼년간 호방에 큰 기근이 있을때, 열 여섯살이던 우쁘는 열흘씩 굶어서 사람이라도 잡아 먹을 듯이 눈이 뒤집힌 애비 어머니에게 보러 서말에 팔리어 그때 기근구제 도로 건축공사 십장이었던 洋鬼子에게 처음으로 정조를 깨뜨렸다.”

이리하여 娼女生活로 몸과 마음이 다 상한 우쁘는 날마다 그녀의 창문앞을 지나는 어느 젊은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자기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 원인이 포주의 착취에 있음을 알게 되자, 드디어 그녀는 殺人을 하는 것이다. “보리 서말”에 팔려가서 娼女가 되어 결국 殺人으로 끝맺는 하잘것 없는 “女子의 一生”을 그림으로써, 作家는 지독하게 人間을 冷笑하고 그러한 社會를 非難하고 있다. 한편 「人力車군」은 아쟁이라는 中國人 勞働者를 主人公으로 하여 宗教의 僞善인 면을 묘사하고 있는 作品으로서 여기에도 諷刺가 나타나 있다. 즉 어느날 急病에 걸린 主人公이 病院에 가보니 患者들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 醫師는 時間이 안되었다고 나오지를 않는다. 여기에 雪上加霜으로 죽어서 天堂 가려면 예수를 믿으라고 傳道만 하고 있으니 대단한 irony요 諷刺다. 더구나 天堂에는 人力車군도 없다는 말에 失望한 아쟁은 病院을 뛰쳐나와 急病으로 죽고야 만다.

그러므로 이러한 傾向派의 作品은 社會意識이 강하게 나는 社會小說이라고 볼 수 있다. 崔曙海의 「脫出記」등도 곧 貧富問題라는 社會性을 直說의으로 나타내고 있어, 現實暴露와 社會告發을 能事로 하고 있다. 李秉永과 같은 Proletariat 作家들도 바로 이런 점을 極大化시켜 體制에 대한 排戰과 社會에의 抵抗을 作品化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作品에 社會現實을 諷刺하고 批判하는 경향이 농후했음은 물론이다.

3. 現代小說의 諷刺性

흔히 開化期 이래의 文學을 現代文學 또는 新文學이라 하지만, 細分하면 開化期の 新小

10) 白鐵, op. cit. pp. 336~340.

說이니 20年代까지의近代小說이니 30年代 이후의現代小說이니 하고 부를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異論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고, 다만 知識人의 不安을 主題化하고 現代의인 小說美學을 導入한 30年代 이후를 現代小說로 보아 俞鎮午라든지 李箱, 金裕貞, 蔡萬植 등을 言及하려고 한다.

俞鎮午의 「金講師와 T教授」는 大學社會의 不條理를 그려낸 作品으로서, 여기에는 人間性의 두 유형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즉 T教授로 대표되는 出世主義의 俗人類이 그 하나고, 金講師로 대표되는 眞識에 따르려는 知識人類이 또 하나이다. 따라서 作家는 學問의 殿堂이 되어야 할 學問이 矛盾과 不條理로 차 있음을 諷刺 告發하고 있다. 30年代라는 世界的 危機와 不安의 時期에 知識人이 접어야 하는 苦惱의 모습이 이 作品 속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作品 主題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妥當性을 가지게 된다. 즉 教育界의 癱瘓化된 不條理는 應당 諷刺文學의 對象이 되어 非理와 矛盾이 批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俞鎮午의 「金講師와 T教授」는 學問社會의 不條理를 諷刺한 첫 作品이 되는 셈이다.

30年代의 作家 中에서 金裕貞의 小說에도 諧謔과 諷刺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金裕貞은 農村의 어리석은 人間들을 등장시켜 人生을 挪揄 嘲笑하는 作家로서,¹¹⁾ 그의 作品은 土俗의이고 特히 措辭에 있어서 뛰어났다고 白鐵 교수는 지적한다. 즉 金裕貞의 小說은 日帝 植民地 治下의 農村의 窮困相을 여실하게 묘사하였으며,¹²⁾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人間들을 諷刺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예컨대 「金 마는 콩밭」(1935)을 보면 金줄을 켤다고 온 콩밭만 헤치 놓은 어리석은 人間을 그림으로써, 이를 挪揄한다. 특히 金裕貞의 技巧는 主人公만 자기의 無知를 모를뿐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나 讀者까지도 그것이 헛된 짓임을 모두 알도록 만들어서 더욱 諧謔과 諷刺를 느끼게 한다. 「봄봄」(1935)은 딸을 쫓는 미끼에 속아서 몇년씩이나 헛고생을 하는 어느 媒傭사위(설은 비습)의 이야기를 그렸고, 「동백꽃」(1936)은 짝이 늙어 뜨는 젊은 아들을 그리워 女兒의 놀림을 받는 男兒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 주고, 「산골 나그네」(1936)는 僞裝結婚으로 속아서 모든 재산을 털리는 山속의 老總角 母女의 어리석음을 야유하고 있으며, 「맹범」(1937)에서는 重病에 걸린 아내를

11) 白鐵, op. cit., pp. 421~

“이 作家는 自己 고백과 같이 우물이 性格化되었고 그 우물성은 一見 ‘유모어’해 보이는 그 作品 뒤에 哀愁를 숨겨 놓았던 것이다. 그의 作中 人物이란 대개 어리석고 無知한 人物들인데, 作者는 그 人物들을 作品 舞台 위에 올려 놓고 어리석은 苦悶相을 시키며 그 人生의 悲劇에 대해서 演出者로서 主導的인 決定을 하게 만들고 傍觀하는 態度를 취했던 것이다.”

12) 金允植, 김현, 「韓國文學史」(民音社) pp. 197~193.

유어모가 가족장 金裕貞文學은 노루와 敎條, 貞春, 擧千金계의 欸으로 워어진 農村의 窮乏相을 리얼하게 그렸다고 지적한다.

지고 大學病院을 찾아가나 月給을 주지않음은 물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失望하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夫婦를 그리고 있다. 그 밖에도 술집에 행랑이머울 건드린 것이 禍根이 되어 物心으로 고통을 당하는 主人公을 그린 「貞操」(1936)라든지 술집 계집에게 속아서 세간살이를 흠쳐내어 출행낭을 놓기로 하지만 본 남편이 나타나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술」(1936)이라든지, 제 몸을 自傷하면서 監督의 눈을 피해 술을 숨겨 내오는 金鑽의 鑽夫들을 그린 「金」(1938)과 같은 作品이 모두 人間의 惡行을 諷刺하고 있는 諧謔的인 作品이다. 그러므로 金裕貞은 無知하고 어리석은 人間들을 등장시켜 마음껏 그들을 嘲弄하고 挪揄하여 滑稽의 效果를 높여준다. 게다가 金裕貞은 言語驅使가 능숙하여 이들 素材를 알맞게 作品化시킨다. 비체적으로 山골이나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을 그려 貧困한 生活相을 보여 주되, 웃음이 있고 유유미가 짙게 풍기는 것이 그의 作品이다. 다음의 蔡萬植과 더불어서 金裕貞은 30年代의 諷刺文學을 대표하는 作家라고 하겠다.

「레디·메이드 人生」(痴叔)「少妄」과 같은 作品을 통해서 人間과 社會를 諷刺하고 있는 蔡萬植은 강력한 批判精神을 바탕으로한 irony를 基調로 하고 있다.¹³⁾ 金允植과 김현은 蔡萬植의 人物設定이 肯定의 人物과 否定의 人物이라는 두 類型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否定의 人物이 肯定의 人物을 조롱하고 야유함으로써 irony의 效果를 높여준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먼저 그의 「레디·메이드 人生」(1934)은 知識人의 불우한 運命을 諷刺的으로 묘사한 作品이며, 求職運動을 하는 主人公의 눈에 비친 當代의 레디·메이드 社會를 批判하고 있다. 就職을 부탁하는 靑年들에게 農村으로 돌아가라고 권하는 社長이 나오고 下宿費를 독촉하는 안主人, 단돈 20전에라도 좋으니 貞操를 팔려드는 작부, 法律책을 지당잡혀 술을 마시는 인테리 靑年들이 등장하여 社會의 不條理를 告發한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아들을 인체소에 小年工으로 맡기고 主人公은 “레디·메이드 人生이 비로소 겨우 임자를 만나 팔리었구나”고 중얼거리면서 이 作品은 끝나는데, 文章도 ironical하고 대단히 諧謔的이다.

“잔은 사발만 한테 술 주전자는 눈알만 하다. 술을 부어 놓으니 M이 칩 받아 흥고는 노래를 투정한다. 계집애는 그보다 더 약아서 제가 그 술을 짝 들이마시고는 빈 잔만 M의 입에 대어준다.”

13) Ibid, pp. 185~189.

“蔡萬植의 여러 作品들의 基調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의 아이러니는 그의 作品을 이루는 文章 하나 하나와 그 文章 사이 行間, 그리고 그의 作品 속에 그가 즐겨 등장시키는 人物들에게서 다같이 드러난다.”

金裕貞의 作品이 情的인 諷刺를 하였다면 蔡萬植의 경우에는 知的인 諷刺이기 때문에 純然 文章도 批判的이다. 「痴叔」(1938)은 日本人 밑에서 장사를 배우는 現實主義 青年의 narration을 통해서 社會主義 운동을 하다가 廢人이 된 한 인테리를 嘲笑 揶揄하고 있는 作品인데, 여기에는 오히려 그 青年까지도 諷刺한다는 irony의 效果가 나타나 있다. 즉 作家는 青年을 통해서 인테리 主人公을 批判하는 形式을 취했지만, 오히려 그 青年을 遊說的으로 諷刺 批判하는 效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大學을 나오기도 속 뜻제리고 社會主義 때문에 감옥살이나 하고 重病에 걸려 本妻에게 잊혀서 겨우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아저씨를 narrator는 야유하고 조소하지만, 作家는 오히려 日本人에게 장가가고 出世하고 싶어하는 이 青年을 諷刺의 對象이 되도록 그림으로써 二重의 效果를 내고 있다.

“우리 아저씨 말이지요. 아바 저시키, 한참 당년에 무엇이나 그놈의 것, 사회주의라 니나, 막걸리라더냐, 그걸 하다, 경역 살고 나와서 폐병으로 시망 았고 누웠는 우리 오촌 고모부 그 양반…… 머, 말두 마시오, 베타 사람이 어찌면…… 내 월, 친새 간테 없지요.”

이런 투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야유하는 narrator는 日本人 상전에게 잘 보여 日本 女子에게 장가가고 日本 사람 밑에서 出世하기를 학수고대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滑稽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作家가 노린 것은 二重의인 效果라고 볼 수 있다. 「少妄」(1938)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말하는 獨白形式의 小說인데, narrator인 아내가 極히 常識的인 生活人임에 비하여 남편은 末伏날에 冬服을 입고 鍾路 메거리를 환복하는 怪常한 인테리다. 그는 5년적이나 근무하던 新聞社를 헌신짝처럼 그만 두고, 집에 치박혀서 新聞雜誌나 뒤적이는가 하면 세상을 개탄하여 俗物 俗虫이라고 謗議이나 퍼붓는다. 그는 俗物社會에 휩쓸리기 싫어서 방안에만 침기하고 있으니 narrator의 눈에는 노이로제 患者거나 미친 사람으로 보이고, 이 作品은 바로 醫師夫人인 幸福한(?) 인니에게 하소연하는 아내의 獨白이다. 그런데 「레디·메이드 人生」에서도 그랬었지만, 이 作品의 경우 主人公을 疎外하는 구체적인 社會狀況의 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서도 「少妄」은 대단히 諧謔의 이고 인테리 主人公의 모습을 諷刺하고 있다.

이와같이 蔡萬植은 30年代 作家 중에서 金裕貞과 함께 가장 人間과 社會를 揶揄하고 諷刺 批判하였다. 그 중에서 金裕貞이 情的인 諷刺를 하였다면 蔡萬植은 보다 知的인 諷刺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世態小說을 많이 쓴 朴泰遠의 경우라면저 心理主義 文學을 일으킨 李箱의 小說에서 신랄한 諷刺性을 보게 된다. 「川邊風景」을 써서 淸溪川 주민

의 庶民生活의 哀微을 그린 朴泰遠은 「聖誕祭」「小說家 仇甫氏의 一日」과 같은 作品에서 人間과 社會를 告發한다. 카페의 女給과 失職인테리로 代表되어지는 그의 作品은 서울 庶民層의 生活모습을 예리하게 그려서 리얼리즘 文學의 좋은 成果를 보여 주고 있다. 상당히 modernity를 지니고 있는 그의 文學은 漫延體 文章을 의식적으로 쓴 그 style로서도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現實狀況을 外面치 않고 證言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李箱은 詩든 小說이든 主知主義를 代表하는 30年代 文學의 新銳라 할 수 있으며 人間과 社會에 대한 諷刺性을 나타낸다. 특히 그는 自意識의 過剩을 露出시켜 自己嘲笑과 挪揄를 일삼는다.

“劉釧가 되어버린 天才를 아시오? 나는 愉快하오. 肉體가 흐느적 흐느적 하도록 疲勞했을 때만 精神이 銀質처럼 맑소. 니코틴이 내 烟에 얹는 뱃속에 스미면 머릿속에 의례히 白紙가 준비되는 법이요. 그 위에다 나는 윗트와 파라독스를 바둑 白石처럼 늘어놓소. 可憎할 常識의 病이요.”

그의 代表作이라 할 「날개」(1936)는 이러한 序頭로 시작되는데, 心理主義 리얼리즘에 입각한 自意識 세계의 表現이라고 하겠다. 賣春婦로 보이는 아내에게 없혀사는 narrator “나”는 常識의 世界를 超脫하고 있는 自意識에 묻혀 있다. “나”는 무엇보다도 夫婦 사이에 있어서의 sex를 배제하고, 또 金錢을 인정치 않으며, 엉뚱하게 아내의 化粧品이나 즐기는 非常識的인 行脚을 한다. 그는 日常生活을 拒否하며 自意識的인 苦悶에만 빠져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마지막에 “날개야 다시 돌아라. 날자 날자 날자. 한뼘만 더 날잖구나.” 하고 救援에 대한 希求를 絶叫한다. 즉 李箱은 「날개」에서 俗物化된 家庭과 社會를 신랄하게 非難攻擊하면서 救援과 脫俗을 主題化한 것이다. 崔載端가 이 作品을 리얼리즘의 深化라고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겠다.

“敗北를 당하고 난 現實에 대한 忿怒 — 이것이 즉 李箱의 藝術의 實質이다. 그리고 現實에 대한 忿怒를 그는 現實에 대한 모독으로써 해소시키려 하였다. 이 現實冒瀆은 어떠한 形式을 가지고 나타났는가? 그는 諷刺 윗트 挪揄 譏笑 誇張 파라독스 自嘲, 기타 모든 知的手段을 가지고 家庭生活과 金錢과 性과 常識과 安逸에 대한 冒瀆을 감행하였다”¹⁴⁾

14) 崔載端, “<川邊風景>과 <날개>에 對하여” 『崔載端論集』(靑雲出版社) pp.312~323
그는 朴泰遠의 「川邊風景」을 어리리즘의 擴大로 보고 李箱의 「날개」를 리얼리즘의 深化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崔載瑞가 말한 現實冒瀆이란 곧 現實社會에 대한 諷刺요 抵抗이요 批判을 말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李箱은 마치 詩「烏鵲圖」에서 精神的인 時代苦를 諷刺하고 現實社會를 諷刺했던 바와 같이, 小說「날개」에서는 日常的인 俗人社會를 嘲笑 批判하고 救援에 대한 몸부림을 試圖하고 主人公 “나”는 “아니”로서 代表되는 俗物社會를 신랄하게 揶揄하고 심지어 自嘲自蔑에 까지 빠져서 諷刺의 對象을 自己內面に 두고 있다. 즉 李箱은 人間과 社會를 송두리째 非難 攻擊하고 있는 것이다.

李箱은 이러한 일을 知的인 sophistication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다. 그의 「蜘蛛會家」(1936)나 「逢別記」 또는 「終生記」(1937)「童骸」(1937)를 보면 그가 얼마나 wit와 irony와 paradox를 통하여 人生과 社會를 諷刺하고 또 批判하는가를 알 수 있다.

“ 거미— 분명히 그 자신이 거미였다. 물뿌리쳐 럽야와들어가는 안해물빨아먹는 거미가 너 자신인 것을 깨달아라. 내 거미다. 비린 내 나는 입이다. 아니 안해는 그럼 그에게서 아무것도 안 빨아 먹느냐. 보렴— 이 파랗게 질린 수염 자죽— 평한 눈— 늘 씩하게 만던 되나 마나 하는 형편 없는 營養生— 보아라. 안해가 거미다. 거미아닐 수 있으랴. 거미와 거미, 거미와 거미나. 서로 빨아 먹느냐. ... 담긋듯이 안해는 자아 들어갔다. 쇠와 같이 독한 꽃— 독한 거미— 문을 닫자. 생명이 뚜껑을 덮었고 사 람과 사람이 사귀는 버릇을 달았고 그 자신이 울던 았다. 온갖 빗에게— 온갖 관개에서— 온갖 희망에서— 온갖慾에서— 그리고 온갖 악에서— 다만 방안에 서만 그는 활발하게 발광할 수 있다.”

— 「蜘蛛會家」에서

李箱의 文學은 분명히 自意識의 苦悶과 廢鎖된 自我의 疎外意識을 作品化하고 있음을 본다. 그의 小說을 心理主義的이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人間の 內面世界에 그의 카메라의 焦點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30年代에 꽃핀 諷刺小說은 金裕眞의 作品에 나타난 無知하고 어리석은 人間性을 嘲笑한 것과, 蔡萬植의 作品에서 보는 挫折된 失職인테리와 社會現實에 대한 非難攻擊이 있고, 세 번째로는 李箱의 作品에 나타난 疎外되고 廢鎖된 自意識의 世界를 描寫하여 人間과 社會를 批判하는 樣相이 있음을 보게 된다. 즉 金裕眞은 直接的으로 農村의 窮乏相을 통해서 不足한 人間性을 告發하고 蔡萬植은 俗物社會와 俗人羣體를 등장시켜서 이를 批判하는 대신 李箱은 自意識의 內面을 펼쳐 보임으로써 人間을 諷刺하며 間接的으로 現實社會를 非難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李箱은 社會意識보다도 人間存在을 탐구하려는 人間意識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李箱의 主人公들은 지나치게 썩어질 空間에 침겨하고 있는 疎外

된 人間이요 實存的인 人間인 것이다.

이상으로써 解放前의 小說作品에 나타난 諷刺性을 考察하였거니와, 흔히 社會意識이 강한 作品이라든지 主知的인 作品에 諷刺과 批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개는 人間에 대한 諷刺과 社會에 대한 諷刺이 서로 섞여져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때의 作品은 檢閱과 制度的인 抑壓때문에 그렇겠지만 詩에 비해서 抵抗小說이 매우 약하고, 諷刺의 tone인 挪揄와 嘲笑나 攻擊과 批判중에서 消極的인 前者에 그쳤음을 볼 수 있다. 當時의 社會現實에 대한 積極的인 批判과 攻擊이 담긴 抵抗文學이 나오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음에 解放 이후의 現代小說을 보면 대개 50年代에 들어와서야 本格化되어지고 活潑해진다. 마치 3.1萬歲運動이 分水嶺이 되어 20年代의 近代文學을 꽃피웠던 것처럼, 6.25韓國動亂은 戰後文學이라는 찬란한 花園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悲慘했던 同族相殘이라는 戰爭과 그것이 휩쓸고 간 戰後的 慘禍를 素材로 하는 小說이 적지않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우선 戰前作家들의 作品중에서도 金東里的의 「歸還肚門」(1950)은 防衛軍에 소집되었다가 뿔뿔이 흩어진 肚丁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려 無責任했던 防衛軍 事件을 間接的으로 批判하였으며, 「與南撤收」(1955)는 그 유명했던 與南에서의 撤收作業을 직접 素材로 하여 戰爭이 얼마나 人間을 悲慘하게 하는지를 描破하였다. 金東里는 그 밖에도 「密茶苑時代」에서 釜山에 밀려간 文化人들의 哀切한 生活들을 보여 주었고, 「實存舞」에서는 北과 南에 아예를 가진 越南한 知識人의 苦惱를 그려서 現實狀況을 問題提起하고 있다.¹⁵⁾

黃順元도 「카인의 後裔」(1954)를 써서 解放後 土地改革을 中心으로 北韓社會의 非人間化 현상을 描破했으며, 「曲藝師」(1952)에서는 戰爭으로 밀려 내려간 知識人 家庭의 悲哀를 그리고 있고,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에서는 戰爭으로 心身에 傷處를 입은 젊은 世代들의 苦惱와 彷徨을 훌륭하게 描出하였다.¹⁶⁾ 그리고 安壽吉은 「第三人間型」(1954)에서 戰爭이 가져다 준 人間性的 急變을 잘 보여 주었고, 鄭飛石의 「自由夫人」(1952)은 戰後社會의 道德的인 墮落을 그려 보이기도 하였다. 물론 이와같은 作品들이 바로 諷刺 小說이라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들 作品이 時代와 社會를 正의하게 反映하고, 人間과 社會의 비틀거리는 狀況을 告發해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本格的인 諷刺나 批判은 小肚층의 戰後文學에서 찾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우선

15) 拙稿, “金東里的의 文學世界” 『語文學論叢』 7輯 pp. 88~

16) 拙稿, “黃順元文學 序說” 『語文學論叢』 6輯 pp. 33~

——, “黃順元의 生命主義 文學” 『韓國言語文學』 4輯 pp. 14~

變形의 人間像을 그려서 人間을 모멸하고 야유하는 心理主義 作家 孫昌沙은 대단히 冷笑의 이고 虛無的이다. 그는 人間의 內面世界에 焦點을 맞추어 自意識의 苦悶을 描破하였으며 특히 人間을 戲謔化하여 이를 諷刺하였다. 그는 性格創造에 능숙해서 加害者인 否定派와 被害者인 肯定派와 剩餘族이라 할 虛無派라는 새 類型의 性格을 등장시켜 人間의 揶揄와 諷刺를 試圖한다.¹⁷⁾ 예컨대 초기 作品인 「血書」(1955)를 보면 sadist이며 complex에 젖어 있는 傷痍軍인이 苦學生을 억압하여 血書를 쓰도록 加害하고, 그 옆에는 無關心과 虛無에 빠져 있는 剩餘族이 존재하여 人間戲謔를 이룬다. 「未解決의 章」(1955)은 人生이란 解決할 수 없는 군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지독한 自嘲와 冷笑를 보여주었으며, 自意識으로 인해 서둘러가는 한 인메리의 戲無意識을 엿보이고 있다. 「流失夢」(1956)은 李箱의 「날개」처럼 「하늘을 잃어버린」 現代人의 彷徨하는 모습을 그렸고 꿈을 잃어버린 自意識의 苦悶과 虛無感을 描破한다. 孫昌沙의 「剩餘人間」(1958)은 덤으로 사는 無意味한 人間像을 등장시켜 人間을 戲謔化하고 있으며, Dostoevsky의 文學世界와 같이 人間에 대한 憐憫과 侮蔑을 불러 일으킨 그의 中篇 「落書族」(1958)도 猪突의인 主人公의 東京에서의 abnormal한 抗日鬭爭을 그림으로써 人間侮蔑과 價値에 대한 揶揄를 퍼붓는다. 이와같이 孫昌沙의 作品에 등장되는 人物들은 모두 非正常的이고 病的인 變形의 人間型으로서 作家는 이들로 하여금 人間戲謔를 演出케 하여 철두철미하게 人間을 諷刺하고 있다. 필경 孫昌沙의 文學만큼 諷刺性이 강한 作品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그는 人間을 deformation 시키고 있다.

그에 비하여 張龍鶴은 狀況을 deformation 시키고 觀念的인 sophistication을 통해서 人間과 社會를 非難 攻擊하고 批判한다. 그는 주로 機械化되어가는 mechanism 社會에 대한 批判이라든지 自由에 대한 希求와 진부한 既成倫理로부터의 脫皮등 文明批判의인 問題性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張龍鶴의 文學은 story를 極少化시키고 逆說의인 觀念과 意識을 表白하는 反傳統의인 小說技法을 活用하고 있기 때문에 難解한 小說의 例를 보여준다.¹⁸⁾ 예컨대 그의 代表作의 하나인 「요한詩集」(1955)은 眞正한 自由에 대한 追求를 主題로 한 作品으로서 觀念的인 獨白을 反芻한다. 즉 自由를 요한으로 比喻하여 自由의 屍體에서 부화되어 誕生되는 참다운 自由를 찾으려는 觀念과 意識이 부각되어진 小說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作品에서 모든 常識의 世界를 批判하고 拒否하는 諷刺性을 살려 볼 수 있다. 逆作小說인 「非人誕生」(1956)과 「易姓序說」(1957)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觀念的인 作品이며 日常生活과 傳統的인 價値에 대한 批判과 反抗을 主題로 하고 있다. Nietzsche의 超人思想처럼 이

17) 拙稿, 「孫昌沙文學의 特性」 「朝大文學」 No. 2.

18) 拙稿, 「現代의 野」와 張龍鶴의 文學世界 「朝大文學」 No. 4.

作品은 “人間—非人—神” 이라는 奇拔한 着想아래 一元의 世界를 拒否하고 多元論의 世界를 주장한다.

“非人의 王國! 時間이 죽고 空間이 氾濫하는 流域, 空間의 距離만이 거기에 있을뿐 時間의 前後가 없는 땅, 結晶이 있을 뿐 腐敗가 없는 안뜰, 存在가 곧 本質이요, 내가 내인 오직 同一律의인 季節이 거기에 온다.”

—「非人誕生」에서

“人間은 하나의 反語, 모든 “人間의”은 “人間”에서의 退去證明書에 지나지 않았다. 暗號가 人間이 아니라 生이 人間이었다. 生 밖에 人間이 있는 것이 아니다! 人間은 그 自体가 原因이요, 그 自体가 目的이었다.”

—「非人誕生」에서

張龍鶴의 作品에는 이렇게 觀念의인 sophistication으로 가득차 있어서 傳統的인 小說技法을 超克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常識의 世界를 痛罵하는 批判과 諷刺를 보게 된다. 「現代의 野」(1960)에서는 現代社會의 組織의 非情性和 惡德을 파헤치고 人間條件의 虛妄性(不條理)을 描破한 力作이다. 長篇 「圓形의 傳說」(1962)은 近親相姦을 그려서 既成倫理에 대한 批判과 反抗을 主題로 한 作品이다. “人間性”에 대한 抗拒를 통해서 “人間”을 되찾아야 한다는 問題意識이 여기에 나타나 있으며, 文明批判의인 思想이 엮여있다. 이와 같이 張龍鶴은 狀況을 變形시키고 知的 獨白을 통해서 人間과 社會를 諷刺 批判한다. 孫昌涉이 性格을 變形시켜서 人間과 社會를 諷刺 批判한 것과는 이런 點에서 다르다고 하겠다. 그리고 孫昌涉의 小說美學은 比較적 plot를 중시하여 傳統的이라고 할 때, 張龍鶴의 그것은 完全 anti-plot를 보이며 反傳統的이라고 하겠고, 知的 詭辯과 觀念의 獨白을 弄하고 있다. 어쨌든 두 사람이 모두 人間과 社會 또는 日常의인 價値의 世界에 대하여 抵抗하고 排戰하였으며, 이들을 痛烈히 揶揄 嘲笑하거나 非難 攻擊하여, 諷刺와 批判을 다하고 있음은 事實이다.

그 밖에도 50年代의 戰後小說에는 諷刺的이고 現實 批判的인 作品이 상당히 나왔다. 朴淵禧의 「證人」(1955)은 人間性을 抹殺하는 自由黨 治下の 官權의 標暴와 非人間化 現象을 告發하였으며, 吳尙源의 「謀反」(1958)은 解放直後의 政治的 terrorism을 통한 人間의 喪失을 證言하고 잃어버린 人間性의 回復을 외친다.

그리고 柳周鉉의 「張氏一家」(1959)는 上流家庭의 부패와 權力社會의 不條理한 社會風習

을 리얼하게 그림으로써 現實을 告發하고 있는 作品이다. 이들의 主題는 물론 휴머니즘에 있지만 混亂期에 있어서의 不條理한 政治的 狀況을 告發 證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諷刺性을 찾아 볼 수 있다.

金光植의 「二·三號 住宅」(1956)은 機械化되어가는 mechanism 社會에 대한 抵抗을 主題로한 作品으로서, 現代文明이 초래하는 不條理를 諷刺하고 있다. 모든 것이 劃一化 되고 規格化되어가는 이 非人間的인 社會組織은 人間을 窒息케 하고 人間性을 抹殺하는데, 作家는 과감하게 이를 批判 非難한다.

李範宣의 「誤發彈」(1959)은 不條理한 韓國社會를 에리하게 描寫하고 거기에서 彷徨하는 現代人的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作品인데, “人間은 神의 誤發彈”이라는 諷刺와 嘲笑가 잘 나타나 있다. 암담한 現實社會와 救濟의 진이 없는 小市民의 苦惱가 잘 그려져 있는 文學의 하나로서 유명하다.

全光鏞의 「꺼버판·리」(1962)는 박쥐같은 人間性을 諷刺 批判한 作品으로서, 日帝時代에는 親口派가 되고 解放後에는 外勢에 야합해서 權力和 富를 누리는 現상을 잘 描破하고 있다. 主人公은 解放後 北韓에서는 朝鮮軍에게 아부하고 越南後에는 다시 美軍에게 굴어서 自身の 安全과 榮達만을 꾀하는데, 이 作品은 대단히 諷刺性이 강하다.

그리고 宋炳洙의 「쫄리·킵」(1957)은 戰爭이 가져다 준 毒버섯과 같은 美軍 幕舍 周邊의 비참한 生活相을 리얼하게 그린 作品으로서 여기에는 人間의 갈등과 衰微이 나타나 있다. 그 처절한 冢(灰) 더미 속에서도 아름다운 人間性이 꽃피게 한 것은 作家의 휴머니즘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비하여 徐基源의 「暗射地圖」(1956)는 戰後世代的 잃어버린 生活相 즉 모든 倫理와 價値와 秩序와 規格등 모든 것을 喪失하고 있는 人間들의 모습을 그린 作品인데 마지막 남은 生命에 대한 執念을 부각시켰음은 意味가 심장하다고 하겠다. 위에 열거한 것들은 50年代의 戰後小說 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몇개만을 例示한 것이거니와 그 때의 作品들은 대개 社會性이 강하고 告發과 暴露가 심했으며 批判과 抵抗이 승렸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60代에도 계속되는데, 특히 諷刺性이 강한 作家들은 金麟翰과 南廷賢, 鄭乙炳 등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金麟翰의 文學은 대단히 知的인 경향이 농후하고 文明批評的인 면이 심하며, 대체적으로 諷刺性을 지니고 있음을 본다. 그는 「마비도」(1956)에서 宗教의 墮落과 橫暴를 暴露 諷刺하고, 宗教裁判에서 死刑을 받으면서도 信仰과 良心의 自由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主人公을 묘사하고 있다.

“일찌기 위대하던 것들은 이제 부패하였다. 사제는 토끼 사냥에 바쁘고 사교는 회개와 순례를 팔아 번장을 샀다. 살전 수도사에게 의변하고 위클리프의 영역 북음서를 몰래 읽는 백성들은 성서의 진리를 성직자의 독점에서 뺏고 독단과 위선의 껍데기를 벗기니 교회의 종소리는 헛되이 울리고, 겁빠진 찬송가는 먼지건 공기의 진동에 불과하였다. 불신과 냉소의 집중 공격으로 송두리채 뒤흔들리는 교회를 지킬 유일한 방패는 異端焚刑 숭과 스미드퍼일드의 사형장 뿐이었다.”

이는 「바비도」의 서두거리와 당시의 타락한 敎會 指導者들 모습을 얼마나 신랄하게 諷刺하고 批判 攻擊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하여 裁縫職工 바비도는 英譯聖經을 읽었다는 罪目으로 잡혀서 宗教裁判을 받고 死刑을 당하는데, 그는 皇太子의 권유나 敎會의 설득에도 굴복하지 않고 良心을 지키면서 死刑場의 언기로 사라진다. 이는 不義와 不正에 항거하는 主人公을 그린 훌륭한 抵抗文學의 하나라고 하겠다. 다음에 「五分間」(1955)은 神과 人間과의 差別과 自由의 追求를 主題로 한 作品인데, 社會의 混亂을 解決하기 위해서 神과 人間에서 풀려난 푸르메슈스가 會合을 하지만 5분안에 걸려되고 만다는 寓話的인 이야기로 되어 있다. 「제우스의 自殺」에서 改題한 「개구리」(1954)도 寓話小說인데, 세상 모든 일은 오직 意識이 벗어내는 것이라는 內容을 담고 있는 作品이다. 제우스神에게 王을 찬양한 개구리들은 통나무王: 다음에 황새王이 나타나서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하자 다시 제우스神을 찾아가서 청원을 하지만, 제우스는 모든 것이 意識의 所産임을 가르쳐 준다.

“신전과 신은 네 마음 속에 있고 산에 있는 것은 아니다. ... 섬기지 않고는, 굶신거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노에근성이여, 의식의 비극이여! 헤브라이의 신을 섬기다가 섬기는데 지친 의식은 20세기 후에 ism이란 것을 꾸며내 가지고 그 밑에 굶신거리고, 이 있지도 않은 허깨비 같은 새로운 신의 명령이라 하여 피를 많이 흘리고 쓰러지리라. 간단없는 의식의 조작이여, 네 죄가 진실로 크도다.”

제우스神이 개구리들에게 한 이 말은 바로 이 作品의 主題도 되거니와 이는 대단한 諷刺 批判이다. 이 作品도 宗教와 人間의 意識을 諷刺한 것으로서, 知的인 文明批判이 나타나 있다.

이에 비하여 南廷賢은 不義하고 不條理한 社會現實을 諷刺 批判하고 政治狀況의 非理까지도 告發 證言하는 作家로서, 批判精神을 발휘하였다. 그의 作品은 모두 철저한 現實批判과 社會諷刺 및 不義에의 抵抗을 시도해 왔는데, 그의 文學의 바탕은 諧謔 滑稽라고 할만

끔 유머러스한 表現과 內容이 많다. 예컨대 「너는 뭐냐?」(1961)는 부당하게 억눌려 사는 한 知識인이 4.19로 인하여 主体性을 回復한다는 內容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戲謔인 俗物들을 신랄하게 諷刺하고 있다. 새벽마다 요강에다 똥을 싸면서도 食母의 입에는 衛生上의 이유를 내세워 사천 마스크를 써주고, 男便에게 高利를 주며 會社에서는 미쓰로 행세하는, 現代女性이란 아내를 諷刺하였으며, 通俗雜誌와 허황된 俳優 志望을 최고의 藝術로 믿고 몸까지 亡치는 食母處女の 似以非藝術 타령을 挪喩하고 있으며, 라디오 드라마에 미쳐 있는 안집 어린이들의 그 鬼神같은 배우崇拜를 嘲笑하는등, 우리의 俗物社會를 유머러스하게 諷刺하며 告發하고 나아가서는 反抗하고 있다. 南廷賢의 이러한 諷刺精神은 政治現實에 비해서도 곧장 作用하여 몇몇의 신랄한 作品을 보이고 있다. 즉 무엇을 해야 할지 目標을 잃었으면서도 무엇인가 變化가 오기를 기다리는 한 家庭을 그려 5.16이후의 縮막히는 社會現實을 描寫한 「司會棒」(1964)이라든지, 革命政府의 産兒制限 때문에 아내를 致死케 한 罪로 動物園에 收監되어 있는 인테리 靑年이 故鄕의 父親에게 보내는 書翰形式을 통해 腐敗一路에 있는 政府現實을 痛罵하고 있는 「父主前上書」(1964)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蕪地」(1965)에서는 美軍들의 蠻行과 橫暴를 지독하게 폭로하고 無氣力한 우리의 主体性을 되찾도록 力說하고 있어 抵抗文學의 좋은 보기를 보인다.

“이 건널 수 없이 썩어빠진 國회여 정부여 ...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밤낮없이 주지육립 속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에만 부심하고 있는가. 나오라, 요정에서, 호렐에서, 관사에서. 그리고 민중들의 선두에 서서 몸소 아스팔트에 배배기를 깔고 전세계를 향하여 일대 찬란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고 진정한 民族愛와 愛國을 絶마하는 이 作品은 南韓의 現實을 “이방인들이 흘린 오줌과 똥물만을 주식으로 하여 어떻게 우화처럼 우습게만 살아온” 것이라고, 政治的 現實을 非難 批判한다. 이리하여 南廷賢은 이른바 社會參與文學의 旗手로서 活動하기에 이른다.¹⁹⁾

다음에 鄭乙炳은 問題意識이 강한 作家로서 歷史的 素材나 現實的인 素材를 박론하고 항상 批判하며 對次的 姿勢를 보인다.

“歷史的인 것과 非歷史的인 것, 俗性과 非俗性의 兩立, 나치 말하면 모랄과 反 모랄의 鬭爭. 이것은 매우 미립적인 개념이지만 절대적인 現實性을 갖고 있고, 人間的인 悲劇性을 내포하고 있다. 나의 文學的인 出發은 여기에서 비롯한다.”

— 作品集 「末世論」의 「序文」에서

19) 拙稿, “南廷賢의 諷刺小說” 「國草文學」2輯 pp. 23~

고 밝히고 있듯이, 鄭乙炳의 文學은 모랄과 反모랄의 갈등과 鬭爭을 통하여 歷史와 現實을 批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아테나이의 碑銘」이라든지 「까토의 自由」와 같이 歷史의인 問題를 作品化하기도 하고, 「개새끼들」 「有醫村」 「말아들인다는 問題」 「選民의 거리」 등 極히 現實的인 問題를 批判하는 作品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文學은 俗性에 抵抗하는 非俗性 즉 不義와 不正에 抗拒하는 自由와 正義의 鬭爭이 항상 主題로서 등장한다. 예컨대 「개새끼들」(1966)이나 「까토의 自由」(196)에서는 自由와 옳은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苦難을 당해야 하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는 곧 歷史와 現實에 대한 對決이요 反抗이 아닐 수 없다. 「有醫村」(1968)은 刀圭界의 不條理를 告發하고 이를 批判한 作品으로서 유명하고, 「말아들인다는 問題」(1970)는 官界의 不正과 腐敗를 暴露하려는 한 記者의 鬭爭을 그린 作品이며, 「選民의 거리」(1970)는 고철화된 政治界의 不義와 對決하려는 젊은 政治人의 孤獨한 鬭爭을 그린 作品이다. 이들은 모두 現實社會의 不條理와 反모랄 현상에 대하여 批判하고 抵抗하는 作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良心과 自由와 正義의 싸움이 終末에는 으레히 敗北 挫折되고 만다는 pessimism이 또한 그의 作品에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말아들인다는 問題」를 보면 韓國社會의 不義와 不正이 얼마나 組織化되고 難攻不落의 城地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반면에 모랄과 反俗性和 正義의 편이 얼마나 孤獨하고 힘겨운 일을 하는지를 드러다 볼 수 있다. 그들에게는 sex와 money의 攻勢가 들어오고 power로 밀어 부치는 物理作用도 일어난다. 그리하여 끝내 正義는 窒息 당하고 社會惡과 反모랄은 勢力을 얻어 擴大되어간다. 人生은 궁극적으로 悲劇的이라는 pessimism이 그의 作品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鄭乙炳은 꾸준히 不條理한 社會現實을 告發하고 이를 批判하고 抵抗하는 作業에 精進하고 있음은 높이 사지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서 南廷賢의 경우와 비교해 본다면 南廷賢은 더중 諧謔的으로 社會批判을 시도했고, 鄭乙炳은 더중 직접적인 攻擊의 方法으로 現實 批判을 하고 있다는 차이가 엿보인다.

60年代의 作家 中에는 이와같이 社會問題에 挑戰하는 參與文學이 盛行되었음을 본다. 그 中에서도 崔仁勳과 徐基源은 小說技法의 革新을 통하여 現實批判을 試圖했다는 점에서 注目된다.

우선 崔仁勳은 대단히 實驗的인 探究의 作家로서 知的 獨白이 심하고, 觀念과 幻想의 表現이 심한 作品을 많이 썼다. 「Grey 俱樂部顯末記」(1959) 이후 「假面考」(1960) 「九雲夢」(1962) 「灰色人」(1964) 「西遊記」(1966) 「웃음소리」(1966) 와 같은 觀念的인 內面 探究의 文學이

20) 拙稿, “鄭乙炳의 「有醫村」과 現實批判” 『圓卓文學』 7輯 pp. 32~

있는가 하면, 古典을 parody한 「춘향뎐」(1967) 「춘부뎐」(1960) 과 같은 作品이 있고, 「廣場」(1960) 이나 「熱河日記」(1962) 「總督의 소리」 「主席의 소리」(1968) 「小說家 丘甫氏의 一日」(1972) 등 現實批判을 주로 한 作品이 있다. 본래 그는 知性的인 觀念의 作家로서 知的인 幻想을 잘 驅使하였으나 그 속에 이미 現實的인 作動을 胚胎하고 있었기 때문에 社會性이 강한 作品도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崔仁勳의 現實批判은 直說的方法이 아니라 특이한 小說技法의 窠臼 아래 이루어졌음을 注目해야 한다.

“文學의 媒材인 言語는 事物이 아니라 共同體의 思考型과 情緒에 의해 조직된 ‘觀念’이다. 文學作品을 쓴다는 것은 作家의 意識과 言語와의 싸움이라는 形式을 통하여 作家가 자기가 살고 있는 社會에 대하여 批評을 행하는 것이다. ... 그런데 文學도 藝術인 한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現實의 記號로서의 성격울 가진 言語를 택했을 망정 藝術로서의 次元을 유지하자면 現實을 否定하는 조작을 거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 媒材 자체가 非現實的인 事物이라는 해택을 가지지 못한 文學은 比喻와 虛構라는 조작을 통하여 現實의 記號인 言語를 現實을 否定한 事物로 승격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文學의 비극적인 二律背反의 운명을 발견하게 된다. 즉 文學은 그 媒材 때문에 뛰어나게 現實的이어야 하면서 藝術이기 위하여는 現實을 否定해야 한다는 事實이다.”²¹⁾

위의 發言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崔仁勳은 藝術的인 形象化를 통한 現實 批判을 試圖하였으며, 아울러서 寓話的인 方法이나 諷刺文의 方法 또는 환상적인 方法 등을 널리 活用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現實狀況을 批判하고 社會意識을 들어내는 경우에도 항상 存在의 意味를 探究하고 內面世界의 追求를 잊지 않는다. 요컨대 그는 항상 現實社會를 素材로 하면서도 寓話나 atatement의 形式으로 變形시켜서 이를 批判하고 藝術的인 表現과 存在意味의 追求를 含有한다고 볼 수 있다. 例컨대 「廣場」에서는 南北의 이데올로기의인 對決속에서 겪게 되는 知識人的 自由에로의 脫出과 挫折을 作品化하고, 非人間的인 南北의 社會狀況을 선명하게 批判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보다 궁극적인 人生의 意味探究가 부각되어진다.²²⁾ 그리고 自意識이 강한 主人公 李明俊의 知的인 sophistication이 전편에 깔려 있어 觀念小說이 되게 한다.

다음에 그의 allegory 小說인 「熱河日記」와 「九雲夢」을 보아도 韓國의 社會狀況을 諷

21) 崔仁勳, “文學과 現實” 『現代韓國文學全集』 16卷 (新丘文化社) p. 535.

22) 金允植·김현, op. cit. pp. 250~

“崔仁勳의 文學은 疎外意識을 주로 다루고 있다.”

刺하고 批判하였지만, 모두 寓話의인 方法을 통해서 하고 있음을 본다. 즉 「熱河日記」는 考古學者가 옛날의 化石을 分析 研究하여 그 때의 社會相을 추적해가도록 했으며, 「九雲夢」은 “朝鮮原人考”라는 論文을 쓰고 있는 解剖學者가 夢遊病 患者의 屍體를 解剖하여 그 때의 社會相을 추적해 가도록 하고 있다. 즉 approach해가는 方法은 다르지만 日帝時代에는 日本人들의 잔인한 侵略을 당하고 自由黨시절 4.19, 5.16 등의 社會的 混亂을 겪으면서 人間性이 윤택되고 挫折되어가는 모습을 作家는 이들 寓話의인 作品속에 간주어 놓고 이를 諷刺 批判하고 있다.

崔仁勳의 걸작인 「總督의 소리」나 「主席의 소리」도 地下放送의 形式을 취하고 있는 allegory小說로서, 그 內容은 모두 現實批判과 社會諷刺로 되어 있다. 崔仁勳을 實驗의인 作家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小說形式을 創造해 내고, statement小說이라고나 할 演說形式의 小說을 색다르게 써보는 등 技法意識이 강하기 때문이다. 日本의 韓國再侵을 위하여 地下運動을 하고있는 朝鮮總督府가 地下放送을 통해서 親日勢力에게 呼訴하는 形式을 취한 「總督의 소리」는 세번째 걸쳐서 발표된 連作小說이다. 그 첫번째는 “제6대 大統領 選舉 및 제7대 國會議員 選舉 종료에 즈음하여 발표한 論評放送”인데, 내용은 주로 選舉不正에 대한 暴露요 諷刺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렇지요. 만도인들의 그 썩은 근성이 어더로 갖겠유니까. 막걸리는 홀려서 강을 이루고 부스럭 돈은 홀어저 낙엽을 이루었습니다. 또다시 피아노표, 쌍가락지표, 다리미표, 무더기표, 데리루표, 개표 부정의 난장판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난장맞은 것입니다. 그들은 썩은 재사를 지낸 것입니다. 이 추악한 종족, 자존심도 지혜도 용기도 어느것 하나 갖추지 못한 이 미물보다 못한 종족.”

作家는 總督의 放送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혹독한 現實批判과 社會諷刺를 계속한다. 두번째 放送은 總督의 懺邊談話로 되어있는데, 푸에블로 事件과 北韓武裝共匪의 南侵등을 계기로 한 韓國의 社會現實을 諷刺하고 있다. 세번째 것은 川端康成의 노벨文學賞 受賞에 즈음한 特別談話인데 주로 民主主義에 대한 論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作品은 지나치게 觀念과 饒舌이 심하고 具體的인 story가 없기 때문에 벌써 小說文學의 限界를 벗어나고 있다는 論評을 던지기가 어렵게 되었다. 文學은 社會的 記錄物도 아니고 또 그렇게 多辯한 觀念의 계속만을 피하는 것은 communication으로서의 統一性에도 이긋나기 때문이다. 「主席의 소리」도 上海臨時政府의 3.1節 談話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람직한 政府와 企業人과 知識人과 國民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반면에 잘못된 現實을 批判하고 있다. 崔仁

熊의 「總督의 소리」나 「主席의 소리」는 諷刺的인 allegory의 하나로서, 앞으로도 速作해 갈 수 있겠지만, 讀者에 대한 說得力과 共感作用을 전제한다면, 더 좀 구체적인 事件展開가 필요하고 지나친 觀念과 雜多한 饒舌은 節約하여야 할 것이다.

崔仁熙와 더불어서 徐基源도 速作小說로 「馬廐列傳」이라는 allegory小說을 발표하여 注目을 끌었다. 이 作品은 狀況을 deformation 시키고 거기에 馬廐를 뜻하는 馬廐이란 主人公을 등장시켜서 여러가지로 社會와 時代를 諷刺하고 있는 寓話的인 小說이며 전체적으로 諧謔이 들어있다. 특히 이 作品은 現在와 過去를 교묘하게 중첩시켜서 同一平面위에 封建風習과 近代意識을 再現시켜 더욱 諷刺的 效果를 보여준다.²³⁾ 즉 狀況을 deformation 시켜서 現實批判을 시도하는 것이다. 「馬廐列傳 1」(1971)은 官權의 壓力으로 歷史가 變造되고 歪曲化해 가는 것을 暴露하고 諷刺한 作品이다. 邑內에서 雜貨商을 하는 馬廐은 金史官으로부터 자기 祖父가 甲午年 義兵亂 때 왜군에게 戰死했고 세도가인 吏房의 祖父가 왜놈의 앞잡이였다는 史實을 듣는다. 그러나 얼마후 馬廐은 체포되어 治盜棍을 맞고 풀려나오는데, 金史官은 유신방송을 통해서 吏房의 祖父가 愛國志士였다고 邑誌를 수정 발표한다. 狀況設定을 封建時代로 變形시켜 놓은 것부터가 諷刺的이고 寓意的이며, 특히 歷史를 歪曲시키는 내용을 담은 것은 대단한 社會批判이다. George Orwell의 「1984年」에도 黨의 命令에 따라 모든 歷史를 계속 修正 取捨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니와, 어느쪽이든 대단히 諷刺的이다. 「馬廐列傳 3」(1971)은 清白吏의 子孫인 馬俊이 아버지가 죽자 매뉴게야 權家인 金대감 댁에 出入하여 겨우 外職 하나를 얻으려는 차제에 民亂이 나서 機會를 놓치고, 오히려 上訴하다가 自決한 친구에게 벼슬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로 되어있는데, allegory의 方法을 통한 現實諷刺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이 作品에서 知識人의 社會參與와 權力趣向의 문제를 볼 수 있으며, 人生의 irony를 느낄 수 있다.

「馬廐列傳 4」(1972)는 御史 馬明敏이 泰平郡의 民情을 조사하고 상감에게 올린 狀況의 形式을 취한 諷刺的인 allegory 小說인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社會의 不條理를 告發하고 諷刺하고 있다. 즉 交通警察의 뇌물 수수에서부터 시작하여 言論人이나 學者 文人들의 타락상과 세미나를 꼬집고 마지막에 터키탕과 같은 風俗批判까지 하고 있다. 泰平郡의 言論人들은 “報道하지 않는 自由”를 쟁취하자고 결의하고, 알쏭달쏭한 論說을 쓰며, 外國記事를 크게 취급하여 國內事情을 비교는 일이 많다고 批判한다. 學者들은 俸給타령이나 하고, 낡은 講義노트를 끼고 다니며 같은 소리나 하고 雜文이나 쓰며 論旨을 흐트러서 알쏭달쏭하게 한다고 批判한다. 그리고 學者들을 몇개의 類型으로 나누었는데, 비분강개파, 아부파,

23) Ibid, p. 257.

비판과, 불평파들이 그것이다. 다음에 文人들에 대해서도 文人政治와 派爭에만 빠져 있음을 신랄하게 批判한다. 요컨대 이 作品은 泰平鄴이라는 假想的 地方에 기착하여 바로 우리나라의 社會現實을 諷刺한 것으로서, 특히 言論人 學者 文人과 같은 知識人 社會의 不條理를 批判한 文學이라고 하겠다. 이 「馬鹿列傳」도 連作小說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여 諷刺的인 allegory 文學을 발전시켜 갈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李浩哲의 「小市民」이라든지 金承鈺의 「서울·1964年 겨울」이나 「霧津紀行」, 李濟俊의 「꽃과 소리」 「소문의 벽」 등 當代社會를 잘 描寫하여 批判하고 있는 作品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본다. 특히 70年代에 크게 活動하고 있는 社會意識이 강한 小肚作家들에게서 人間과 社會를 嘲笑 非難하는 諷刺성을 찾아 볼 수 있다. 朴泰洵, 李文求, 金源一, 송영, 黃哲暎, 方英雄, 趙海一, 趙善作, 崔仁浩, 韓勝源, 吳學榮, 辛錫祥에 이르기까지 人間の 惡德과 愚行을 諷刺하고 社會現實의 不條理를 暴露 批判하는 文學이 盛行함을 알게 된다. 다만 이들 社會派 계열의 文學에서 조심할 일은 雜多한 素材에만 빠져서 하나의 藝術作品으로 昇華시키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다. 文學이 社會와 時代에 대하여 응답 使命感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文學이 社會的 記錄物에 그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作家는 時代와 社會에서 素材를 구하지만 이를 個性과 想像力으로 昇華시켜 하나의 藝術作品으로 創造해 내지 않으면 文學의 範疇에서 멀어진다는 眞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Ⅲ. 結 論

以上으로써 現代小說에 나타난 諷刺의 문제를 考察하였는데, 諷刺小説은 古代小說에서부터 계속해 온 중요한 文學傳統의 하나라고 할만큼 널리 盛行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래 小說文學은 時代와 社會의 모습을 리얼하게 反映하는 特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諷刺나 批判과는 관계가 깊은 것이다. 그리하여 開化期의 新小說이라든지 現實意識과 告發 또는 批判精神에 土臺를 하고 있는 自然主義와 리얼리즘 作品에도 諷刺의 特色이 나타나게 된다. 解放前의 作家로서는 金裕貞, 蔡萬植, 李箱과 같은 人生과 社會를 嘲笑하고 非難하는 文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50年代에는 孫昌涉이나 張龍鶴같은 戰後 作家들의 作品에서 많은 諷刺를 볼 수 있다. 그리고 60年代에 이르러 金聲翰, 南廷賢, 鄭乙炳의 作品에 심히 諷刺성이 나타나고, 또 崔仁勳이나 徐基源등의 allegory小說이 나오자 徹지한 人間諷刺과 社會批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現代小說의 諷刺성이 그 tone에 있어서 多樣함을 볼 수 있고, 諷刺의 方法도 여러가지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金裕貞처럼 무식한 人物을 등장시켜 揶揄하는가 하

면 蔡萬植처럼 否定型의 人間이 肯定型의 人間을 嘲笑하게도 하며, 李箱과 孫昌涉처럼 自意識의인 冷笑를 하는가 하면, 張龍鶴이나 崔仁勳의 觀念小說은 知的 辯舌을 통해서 對象을 諷刺하고, 安國善, 崔仁勳의 statement小說이라든지 鄭乙炳, 金聲翰, 南廷賢의 一部作品은 攻擊과 直接的인 批判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金聲翰, 南廷賢이나 徐基源처럼 諧謔性이 강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金聲翰, 崔仁勳, 徐基源처럼 寓話 또는 allegory의 方法을 쓰기도 한다.

다음에 이러한 諷刺의인 小説은 諷刺의 對象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人間の 愚行을 諷刺하기도 하고, 그들의 惡德 또는 風俗을 꼬집기도 하며, 社會의 모든 不條理를 非難하기도 한다. 社會組織이나 制度에 대한 批判은 물론 政治의 事件과 社會狀況등이 모두 諷刺되며, 심지어 宗教, 倫理, 民族性, 文化며 機械文明과 未來社會에 대해서까지도 諷刺하는 것을 본다. 예컨대 金東仁의 「明文」과 金聲翰의 것들은 宗教에 대한 諷刺고, 自然主義者들은 흔히 倫理와 道德을 嘲笑하였고, 張龍鶴이나 金聲翰, 崔仁勳의 作品에는 文明과 文化에 대한 批判이 심하고, 鄭乙炳의 「病든 地球」(1974)라든지 趙海一의 「1998年」은 未來社會에 대한 批判을 주로 하고 있으며, 廉想涉의 「萬歲前」이나 「三代」 崔仁勳의 「總督의 소리」에는 民族性에 대한 諷刺가 심하게 나타난다.

다음에 또 한가지 생각할 것은 이들 諷刺의인 小説이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非藝術性의 문제이다. 文學의 思想性이란 어디까지나 藝術的인 形象化를 바탕으로 하여 表現되어야 하는데, 諷刺의인 作品은 人間과 社會의 非理와 矛盾을 批判하는데 치우쳐서 觀念化되기 쉽고 說教調가 되기 쉬운 것이다. 즉 諷刺小說은 물론 惡德의 矯正을 目的으로 하는 教訓的인 意味를 본래 지니고 있지만, 藝術的 快樂을 저버리는 觀念만으로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앞서서도 언급했거니와 諷刺小說이 社會意識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不條理한 社會와 時代相을 펼쳐보이기만 하는 것은 素材主義에 떨어지기 쉬우니 이를 想像力으로 料理하여 새로운 藝術世界로 創造하고 再現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文學은 근본적으로 人生의 批判이요 解釋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言語를 媒介로 하는 創造的인 藝術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現代小說에 價値있는 諷刺文學이 적지않게 발표되었음은 讀者에게 주는 敎示的인 効用으로 보나 文學史의 發展으로 보나 즐거운 일이라고 하겠다. 대개 社會가 硬化되어지고 不條理가 심할 때일수록 이를 嘲笑하거나 非難하는 諷刺文學이 盛行되는 것으로 말하지만, 諷刺文學은 어느 時代 어느 社會에나 있을 수 있는 社會的 文學의 樣相인만큼 앞으로 더욱 개승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보다도 더 多樣한 方法을 開發하고 諷刺의 對象도 더 擴大함은 물론, 知的 批判精神을 바탕으로하여 讀者에게 共感을 주는 훌륭한 諷刺文學을 創造해 가야 하겠다.